

5·18 당시 '편의대' 기사 보안사가 검열 삭제

“사복 입고 시위대 잠입 활동 김희수 상사 시민군에 붙잡혀” ‘계엄사후보고서’ 삭제 내용 담겨

‘계엄군이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편의대’ 활동을 하다 시민군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취재해 언론사에 올린 기사를 보안사가 검열해 삭제했다는 문서가 최초로 발견됐다.

편의대란 평상복 차림으로 위장해 일반 시민들처럼 행동하면서 첩보, 정보수집과 선무 선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로 이뤄진 임시특별부대를 말한다.

광주일보가 20일 송영길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계엄사후보고서’에 따르면 보안사가 검열한 언론 내용 중 박종렬 동아일보 기자가 지난 1980년 5월 22일 본사에 송고한 ‘광주사태 속보’ 기사가 포함돼 있다.

해당 기사에는 ‘특전사 김희수 상사가 광주시 지원동 다리 인근에서 시민군에게 붙잡혔고 김 상사 조사를 통해 군 작전상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기사에는 ‘김 상사를 비롯한 일부 계엄군들이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표 당시 사복을 입고 시위대에 매복해 사격을 했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치안처·법제처가 작성한 ‘계엄사후보고서(2)’에는 이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안사가 검열해 삭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5·18 연구자들은 당시 은밀히 진행됐던 계엄군의 편의대 활동 상황의 기사화를 막기 위한 보안사의 삭제 조치라는 점을 들어 편의대 활동에 대한 증거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상사는 당시 시민군이었던 문장우씨에게 잡혔다는 게 5월 관계자들의 공동된 증언으로, 문씨는 “김 상사 등 2명을 붙잡았는데 김 상사는 군복이 아닌 시민같은 복장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것으로 기억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군 지도부였던 이재의씨도 ‘1980년 5월 22일 오전 10시께 도청으로 이송돼 계엄군에 잡혀있는 학생들과의 교

환을 조건으로 석방된 김 상사’의 존재를 기억했다.

계엄사후보고서(2)에는 1980년 5월 22일 당일에만 신문 31건(전면삭제 17건·부분삭제 14건), 통신 4건(전면2건·부분2건), 방송35건(전면22건·부분13건), 잡지 4건(전면2건·부분2건) 등의 검열을 한 것으로 적혀있다.

또 5월 18일 부터 22일까지 검열·삭제한 언론 보도도 무려 592건(신문188건, 통신120건, 방송 215건, 잡지69건 등)에 달했다. 당시 삭제된 언론 기사를 모아 분석할 경우 또다른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검열, 삭제된 기사에는 또 도청 진입의 엄격함을 엿볼 수 있는 상황도 담겨있었다. 박 기자는 당시 ‘국내 기자들에게 냉대했던 시민군들이 기자들에게 준 증표를 보여줘야 도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980년 보안사가 검열·삭제한 언론 보도 내용들이 들어있는 계엄사후보고서.

“광주 전역 도시재생·마을 공동체 연계 5·18정신 일상화 가능한 도시 만들자”

40주년 이후 계승 위한 토론회

“광주는 도시 자체가 5·18 자원이다. 광주 전역을 5·18의 현장화·일상화·생활화가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안평환 (사)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는 20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 ‘5·18 40년 이후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5·18민중광쟁기념행사위원회”는 40주년을 맞아 변화한 사회정치적 상황과 5·18 위상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5·18정신을 계승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5·18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광주 전역에 도시재생과 마을 공동체를 연계해 5·18정신의 현장화·일상화·생활화가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5·18을 연계해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18개 골목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과 5·18을 겪은 광주시민들을 해설사로 양

성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5·18이야기가 있는 마을조성사업 등도 제안했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도 “자기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5·18의 세계사적 의미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항쟁의 역사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5·18의 연구는 한국의 민중광쟁사에서 지니는 역사적 의미조차 온전히 해명되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5·18이 짧은 시간 동안 열어 보인 항쟁 공동체는 서양적 국가의 축소판이 아니다. 5·18은 이익의 공유를 위해 결속한 단체가 아니다”면서 “5·18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 때문에 열리는 공동체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5·18은 자기의 안위와 권리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염려했다”면서 “세계화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5·18이 세계를 열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당시 계엄군 특식비는 장교 500원·사병 200원 80년 5월 31일까지 지급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게 지급된 ‘특식비’는 출동부대인 경우 장교는 500원이며, 병사는 200원이었다. 대기 병력에게도 장교는 200원, 병사는 1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1982년 발간된 육군본부 사료인 ‘계엄사’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기간인 1980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광주에 투입된 특전사(7개 여단), 20사단(3개 연대), 전교사 직할 및 31사단, 해병사단(2개 연대), 기타부대에 특식비가 지급됐다.

80년 당시 계엄군에 지급된 급식비는 부·마사관 특식비(200원)와 12·12출동병력 급식비(장교 600원 병사500원), 전국계엄급식비(장교 800원, 병사 500원)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1980년 당시 짜장면 가격이 300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500원의 특식비는 식사비라기 보다는 수당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0년 군인 한달 월급은 병장 3900원, 상병 3400원, 일병 300원, 이등병 2700원 수준이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훼농가 돕기 상상장터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화훼 농가 등의 지원을 위해 20일 오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상상장터’에서 시민들이 화려하게 핀 수국과 장미를 고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호남대 광주지역 4년제 첫 임상병리학과 신설

호남대학교가 실용 학문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와 현대 생활 및 미래 사회변화를 고려해 광주지역 4년제 대학 최초로 임상병리학과를 신설했다.

호남대(총장 박상철)는 올해 e스포츠 산업학과와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개설해 신입생을 선발한데 이어, 내년도 대학

학과(21명)와 만화애니메이션학과(25명)를 개설했다.

특히 올해 호남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등의 전문 의료인력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득하면 각급 병원, 대기업 의료관련 분야 또는 생명과학 분야의 각종 실험실, 의과학 분야 연구소, 보건직 공무원 등으로 진출이 용이하다.

/채희종 기자 chae@

광주대 ‘착한 임대료’... 15개 매장 50% 지원

광주대학교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광주대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사진관과 편의점, 카페 등 15개 매장의 3개월 임대료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번 임대료 지원은 1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교내 입점 업체의 정상적인 영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교통 분담과 상생발전을 위해 이뤄졌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상황이 어려울 때일 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교내 입점 업체와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 19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동신대, 해외연수 지원 ‘파란사다리’ 주관 대학 선정

취약계층 대학생 80명 지원

동신대학교가 20일 호남·제주권 대학생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2020 파란사다리 사업’의 주관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파란사다리 사업은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를 지원, 진로탐색·결정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동신대 재학생 60명, 호남·제주권 대학생 중 20명 등 80명 내외를 선발한다.

이들은 캐나다,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유명 대학과 교육 기관에서 4주 이상

의 연수 기회를 갖는다.

용돈이나 생활비를 제외한 항공료,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 비자·보험료 등 각종 수수료, 국내 교통비, 팀 지원비가 전액 지원된다.

학자금 지원 1주간 이하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학생 40명에게는 생활비도 일부 지급한다.

참여 학생들은 기존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달리 학점·어학 등 성적 기준이 아닌 자기개발 계획과 잠재력, 진로 탐색에 대한 열정, 인성과 참여 의지를 중점 평가해 선발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